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第六册

대학
한국어

大学 韩国语

- 主 编 牛林杰 [韩] 崔博光
- 副主编 李学堂 [韩] 李泳恩 尹锡万

성(聖)을 절(絶)하고
지(智)를 버리면

민리(民利)가

백배(百倍) 하리라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 평천하(治國 平天下)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

大学韩国语

第六册

主 编 牛林杰 [韩] 崔博光

副主编 李学堂 [韩] 李泳恩 尹锡万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大学韩国语·第六册/牛林杰,(韩)崔博光 主编.—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0.1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ISBN 978-7-301-16136-4

I. 大… II. ①牛… ②崔… III. 朝鲜语-高等学校-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222779号

书 名: 大学韩国语·第六册

著作责任者: 牛林杰 [韩]崔博光 主编

责任编辑: 宣 瑄 ccxuan@hotmail.com

标准书号: ISBN 978-7-301-16136-4/H·2375

出版发行: 北京大学出版社

地 址: 北京市海淀区成府路205号 100871

网 址: <http://www.pup.cn>

电 话: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65014 出版部 62754962

电子邮箱: zbing@pup.pku.edu.cn

印 刷 者: 北京大学印刷厂

经 销 者: 新华书店

787毫米×1092毫米 16开本 15印张 265千字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第1次印刷

定 价: 32.00元

未经许可,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邮箱: fd@pup.pku.edu.cn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21 世纪韩国语系列教材》专家委员会

主任委员:

- 安炳浩 北京大学 教授
中国朝鲜语 / 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
- 张光军 解放军外国语学院亚非系主任 博导
教育部外语教学指导委员会委员
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
- 张 敏 北京大学 教授 博导
- 牛林杰 山东大学韩国学院院长 教授

委 员:

- 金永寿 延边大学朝鲜韩国学院院长 教授
- 苗春梅 北京外国语大学亚非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 何彤梅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 王 丹 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鲜(韩国)语言文化系主任 副教授

韩国专家顾问:

- 闵贤植 韩国首尔大学国语教育系 教授
- 姜信沆 韩国成均馆大学国语国文系 教授
- 赵恒禄 韩国祥明大学国语教育系 教授

总 序

中韩建交之初，北京大学出版社出版了全国25所大学联合编写的韩国语基础教科书《标准韩国语》。在近十年的教学实践中，这套教材得到了广大师生的认可和欢迎，为我国的韩国语人才培养做出了积极的贡献。随着我国韩国语教育事业的迅速发展，广大师生对韩国语教材的要求也越来越高。在教学实践中，迫切需要一套适合大学本科、专科等教学的韩国语系列教材。为此，北京大学出版社再度荟萃韩国语教学界精英，推出了国内第一套韩国语系列教材——《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本系列教材是以高校韩国语专业教学大纲为基础策划、编写的，编写计划基本上囊括了韩国语专业大学本科的全部课程，既包括听、说、读、写、译等语言基础教材，也包括韩国文化、韩国文学等文化修养教材，因其具备完备性、科学性、实用性、权威性的特点，已正式被列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本系列教材与以往其他版本教材相比有其鲜明特点：首先，它是目前为止唯一被列入“十一五”国家级规划的韩国语系列教材。第二，它是触动时代脉搏的韩国语教材，教材的每一个环节都力求做到新颖、实用，图文并茂，时代感强，摆脱了题材老套、墨守成规的教材编写模式，真正实现了“新世纪——新教材——新人才”的目标。第三，语言与文化是密不可分的，不了解一个国家的文化，就不能切实地掌握一个国家的语言，从这一视角出发，立体化系列教材的开发在外语教材（包括非通用语教材）规划中是势在必行的。《21世纪韩国语系列教材》就是在这一教学思维的指导下应运而生的。第四，本系列教材具有权威性。由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北京大学安炳浩教授，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副会长张光军教授，北京大学张敏教授，山东大学牛林杰教授组织编写。参加编纂的中韩专家、教授来自北京大学、韩国首尔大学、北京外国语大学、韩国成均馆大学、山东大学、解放军外国语学院、大连外国语学院、延边大学、青岛大学、中央民族大学、山东师范大学、烟台大学等国内外多所院校。他们在韩国语教学领域具有丰富的执教经验和雄厚的科研实力。

本系列教材将采取开放、灵活的出版方式，陆续出版发行。欢迎各位读者对本系列教材的不足之处提出宝贵意见。

北京大学出版社

2007年4月



前言

中韩两国隔海相望,文化交流源远流长。1992年中韩建交以来,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各领域的交流日益频繁。在我国,学习韩国语、渴望了解韩国文化的人越来越多,韩国语教育也进入了一个新的历史时期。根据社会的需求,山东大学韩国学院组织编写了这套韩国语基础课教材。本教材是北京大学出版社组织出版的《21世纪韩国语系列教材》之一。教材根据韩国语语法、词汇、词性的难易度、使用频率,以日常生活、韩国文化为主要内容,旨在培养学习者的综合韩国语能力。

本教材遵循由浅入深、循序渐进的原则,语法讲解详细系统,听、说、读、写各方面的训练分布均匀,使学生在获得扎实、坚固基本功的基础上,能够活学活用,快速提高韩国语综合能力。另外,教材还反映了韩国的政治、经济、文化等内容,使学习者在学习韩国语的同时,加深对韩国的理解。

本教材共分六册,可供大学韩国语专业一至三年级作为精读教材使用,也可供广大韩国语爱好者自学。教材第1—4册每册18课,第5—6册每册12课,每课由课文、词汇、语法、练习、阅读、补充单词等组成。课文一般由一段对话和一段简短的说明文组成。对话部分一般使用口语形式,以与人们日常生活息息相关的内容为题材,便于学习者理解、记忆和使用;说明文字则根据会话的主题设计,一般使用书面语形式。生词部分整理了课文中新出现的单词和惯用语。单词表中的汉字词都标有相对应的汉字,便于学习者理解和记忆。语法部分是对课文中重要句型和语法的解释。重点讲解语法的构成,并举例说明其用法。练习部分以加深对课文的理解、词汇的灵活运用、语法的熟练为主要目的,题目多样、新颖。课外阅读由一篇与课文内容相关的短文组成,通过短文阅读,训练学习者的综合阅读能力,扩大词汇量。补充生词部分收录了语法和练习、课外阅读中出现的生词。每册的最后附有总词汇表,是全书单词的整理,便于学习者查找、记忆。

本教材在编写和出版过程中,得到了山东大学韩国学院和北京大学出版社的大力支持和帮助。韩国学院亚非语言文学专业研究生刘惠莹、贺森、徐静静、王凤玲、尚



应朋、方飞等参加了本教材的部分编写和资料整理工作,北京大学出版社的编辑同志为本书的出版付出了艰辛的努力。在此,我们谨向所有关心和支持本教材编写和出版的有关人士表示衷心的感谢。

由于时间仓促和编者的水平有限,书中难免出现一些错误,真诚地希望国内外韩国语教育界的同行和广大读者对这套教材提出宝贵意见。

牛林杰

2009年3月

目 录

제1과	한국의 전통 혼례 1
	韩国的传统婚礼
제2과	학문의 목적 13
	做学问的目的
제3과	인터넷 28
	因特网
제4과	올림픽을 향하여 45
	五环梦
제5과	신록 예찬 58
	新绿礼赞
제6과	마지막 수업 72
	最后一课
제7과	우동 한 그릇 90
	一碗乌冬面
제8과	마지막 임금님 110
	不幸的国王
제9과	콩이지 127
	孔乙己
제10과	포스트모던 (post modern) 의 보자기 문화 144
	后现代包袱文化
제11과	금시조 (1) 165
	金翅鸟 (1)
제12과	금시조 (2) 199
	金翅鸟 (2)

제1과 한국의 전통 혼례



1. 작품 감상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오늘날의 전통혼례가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전통혼례의 순서와 그 과정의 의미를 알아보자.

2. 생각해 볼 문제

- ① 각 시대별 결혼 풍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 ② 한국과 중국의 결혼 풍습을 비교해 보세요.
- ③ 사랑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거나 집안의 반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겉으로는 일부일처제(한 남자가 한 명의 아내만을 두는 것)를 지켜 왔지만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관습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되었다. 여자를 재산의 하나로 여기는 가부장 제도의 관습이 오래도록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신라와 고려의 왕족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했다. 사촌은 물론이고 여동생과 결혼을 한 왕이 있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친척이나 가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배우자의 신분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훑어보면 나라마다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다. 옥저(沃沮: 고조선 시대의 한 부족)에서는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매매혼이 유행했다. 고구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살며 신부네 집안일을 돌보다가 자식이 큰 다음에야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데릴사위’라고 하는데, 이 풍습은 고대 씨족 사회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의 전통 혼례가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결혼도 신분이 비슷한 집안끼리 중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결혼할 나이가 된 자식을 둔 두 집안에서 중간에 사람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묻는데, 이 때 두 집안을 오가며 의견을 전하는 사람을 ‘중신에미’ 또는 ‘중신애비’라고 한다.

두 집안의 뜻이 서로 맞아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하면, 신랑의 집에서는 사주단자라는 상자에 편지와 함께 신랑의 사주를 적어 신부의 집에 전한다. 사주단자는 신랑 집안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사주단자를 전하는 것을 ‘납채’라고 한다.

사주단자가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 집안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궁합을 본 다음, 결혼하기에 좋은 날을 잡아 다시 신랑의 집으로 보낸다. 이런 풍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결혼 날짜는 대개 신부쪽에서 정한다.

결혼 준비가 갖추어지고 나면 혼례 전날 밤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낸다. 이 때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아비’라고 한다. 전통 혼례에서 함진아비는 신랑 집안의 덕망 있는 사람이 맡지만, 요즘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이 역할을 맡는다. 함진아비는 신부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며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척한다. 그러면 신부 집안의 사람들이 술과 고기를 대접하여 함진아비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

혼례는 신부의 집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다. 의젓하게 사모관대를 차린 신랑이 가마나 조랑말을 타고 함진아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면 혼례가 시작된다.

신랑은 보자기에 싼 기러기를 들고 서서 절을 세 번 하고 신부집에 들어가 상위에 기러기를 놓고 나서 다시 절을 한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절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기러기를 치마에 싸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원래 살아 있는 기러기를 써야 하지만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신랑이 상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서면 원삼차림에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짙은 신부가 동쪽을 향해 선다. 신부가 두 번 큰절을 하면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번 절하는 것으로 답례하고, 신부가 다시 두 번 절을 하면 신랑이 다시 큰절로 답례한다. 이것을 ‘교배례’라고 한다.

교배례가 끝나면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고, 신부도 그 맞은편에 앉는다. 술잔에 술을 따른 뒤 신부가 신랑에게 술을 보내면 신랑은 그 잔을 입에 대었다가 다시 신부 쪽으로 건넨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합근례’라고 한다.

혼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은 예복을 벗고 나와 신부의 부모와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한다. 이 때부터 집 안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다.

폐백은 신부가 시댁 식구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폐백은 혼례를 마친 다음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시집으로 가서 드린다. 요즘에 서양식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이 끝난 뒤에 예식장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폐백실에서 신랑과 신부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폐백을 대신한다. 폐백 음식으로는 대추와 고기를 사용한다. 폐백 음식에는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당 어

일부일처제	[명]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제도.
가부장제도	[명]	가부장이 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가족 형태. 또는 그런 지배 형태.
훑어보다	[동]	위아래로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죽 눈여겨보다.
매매혼	[명]	<사회> 신랑이 신부 집에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 형태. 미개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졌으며, 신부를 인신매매한다기보다는 신부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뒤뜰	[명]	집채의 뒤에 있는 뜰.
서옥	[명]	<역사> 고구려 때에, 혼인을 정한 뒤 신부 집의 뒤뜰에 조그마하게 지어, 사위를 머무르게 하던 집.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갔다.
데릴사위	[명]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
씨족사회	[명]	<사회> 씨족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원시 사회.



올리다	[동]	① ‘오르다’의 사동. ② 위쪽으로 높게 하거나 세우다. ③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하다. ④ 큰 소리를 내거나 지르다.
사주단자	[명]	<민속>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
납채	[명]	<민속> 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② =납폐.
궁합	[명]	<민속> 혼인할 남녀의 사주를 오 행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는 점.
함	[명]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
끌어들이다	[동]	남을 권하거나 꺾어서 자기편이 되게 하다.
의젓하다	[형]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
사모	[명]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관대	[명]	<역사> ‘관디’의 원말. 옛날 벼슬아치들의 공복(公服). 지금은 전통 혼례 때에 신랑이 입는다.
조랑말	[명]	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
원삼	[명]	<역사> 부녀 예복의 하나. 흔히 비단이나 명주로 지으며 연두색 길에 자주색 깃과 색동소매를 달고 옆을 튼 것으로 홑옷, 겹옷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신부나 궁중에서 내명부들이 입었다.
족두리	[명]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위는 대개 여섯 모가 지고 아래는 둥글며,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구슬로 꾸민다.

곤지	[명]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 연지로 찍는 붉은 점.
답례하다	[동]	말, 동작, 물건 따위로 남에게서 받은 예(禮)를 도로 갚음.
교배례	[명]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예식.
따르다	[동]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
함근례	[명]	전통 혼례식 절차의 한 가지.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일.
흥겹다	[형]	매우 흥이 나서 즐겁다.
폐백	[명]	①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뵈을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물건. 주로 대추나 포 따위를 이른다. ② 혼인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예식장	[명]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 놓은 장소. 주로 결혼식장을 이른다.
변창하다	[동]	변화하게 창성하다.

연습



1.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1) 한국 사람들은 보통 퇴근 후의 술 한잔 () 그 날의 피로를 풀니다.
 ① 으로 ② 으로서 ③ 으로 말미암아 ④ 이나마
- (2) 가: 수정과 맛이 어때요?
 나: 처음 먹었을 때 잘 모르겠더니 몇 번 () 그 맛을 알겠더군요.
 ① 먹다 보고 ② 먹어 보니 ③ 먹어 봐도 ④ 먹어 볼 테니
- (3) 요즘 젊은 아이들은 ()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① 왜 그리도 ② 왜 하필이면 ③ 왜냐고 하더라도 ④ 왜 어찌면



(4) 우리 시에도 장차 이 나라의 가요계를 떠메고 나가겠다는 청춘 남녀가 ()처럼 싹트고 있습니다.

- ① 백년해로 ② 명경지수 ③ 아비규환 ④ 우후죽순

(5)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난방 장치를 가동할 수 없었다. 추운 방에서 밤새도록 () 떨었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정신이 멍하다.

- ① 들썩들썩 ② 송글송글 ③ 와들와들 ④ 쭈뼛쭈뼛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1) 더위에 지친 그의 몸은 엇가래처럼 척 늘어졌다.

- ① 펍 ② 축 ③ 껍 ④ 쪽

(2) 기세당당하던 앞집 개가 으르렁거리는 불도그를 보고는 급세 움츠러졌다.

- ① 곧바로 ② 연이어 ③ 이윽고 ④ 드디어

3.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십시오.

(1) ()

- ① 움츠려 든 경제가 줄쳐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② 한국의 애완견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1조 원을 넘어섰다.
③ 벤처 사업의 바람을 타고 청년 실업가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④ 수입 농산물이 웬만큼 많아서, 국내 농업 기반이 위협 받고 있다.

(2) ()

- ①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그 사람 마음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② 무슨 일이든 열심히만 한다면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습니까?
③ 큰돈을 쓰고도 이익을 못 보셨다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군요.
④ 이 옷은 길가에서 싼 값에 산 것인데, 역시 싼 것이 비지떡이네요.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폴 고갱(1848~1903)은 타히티에서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 예술혼을 불태운 천재 화가이다. 그는 중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도 아내만은 그의 천재성을 ㉠ (이해하다), 생활고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 다음 표현을 이용하여 만든 문장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십시오.

- 제1과 한국의 전통 혼례 7



(2) 정치 문제도 문제이다 / 경제 난국 / 현 정부가 어떻게 풀다 / 더욱 중요하다

- ① 정치 문제도 문제라도 경제 난국을 현 정부가 어떻게 푸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 ② 정치 문제도 문제려니와 경제 난국을 현 정부가 어떻게 푸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 ③ 정치 문제도 문제랍시고 경제 난국을 현 정부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 ④ 정치 문제도 문제일지언정 경제 난국을 현 정부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3) 언론이 비판받다 / 정치적 중립을 지키다 / 소외계층을 배려하다 / 보도 윤리에 어긋나다

- ① 언론이 비판받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거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보도 윤리에 어긋난다.
- ② 언론이 비판받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지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보도 윤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 ③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보도 윤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 ④ 언론이 비판받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더라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보도 윤리에 어긋난 것이다.

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은 신문기사의 표제를 보고 쓴 글입니다. 적절하게 풀어쓰지 못한 부분을 고르십시오.

직장인, 자기 계발 투자 저조

45% 투자 전무, 15만 원 이상 13%

올해 초 38%가 자기 계발 투자 용의 밝혀

전문가, 자기 계발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기반

① 직장 생활에서 자기 계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각 한 달 평균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물은 결과, 전체 직장인의 45%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15만 원 이상 투자하는 이들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③ 그러나 올해 초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사했을 때에는 전체의 38%가 자기 계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④ 전문가들은 개인의 자기 계발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8. 다음 글에서 <보기> 의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곳을 고르십시오.

- (1) 인생길은 산행 길과 비슷합니다. (㉠) 산에는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걷기 쉬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젊은 시절의 고생은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젊은이들이여, 미래의 행복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젊은 날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보기>

그 고통을 보상에 줄 행복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우리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의 가사부담은 크다고 한다. (㉠) 아직 유교적 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탓일 것이다. (㉡) 하지만 우리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고, 사회적 역할이 가정에만 머문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고 경제적 독립을 통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